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민자의 학력 신장 교육 - 검정고시를 중심으로 -

이윤진
(안양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2. 평생교육으로서 검정고시와 결혼이민자
 - 2.1. 평생교육과 검정고시
 - 2.2.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과 검정고시
3. 결혼이민자를 위한 검정고시 교육 사업의 영역
 - 3.1. 사회통합영역의 학업지원
 - 3.2. 성인문해교육 영역
4.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 사업 운영 사례
5.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교육의 과제 및 쟁점
6. 맺음말

<Abstract>

Lee, yun-jin. 2021. 7. 1. **A Study on Enhancement of Marriage Immigrants' Scholastic Achievement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 Focused on Qualification Examin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8, 87-114. This study started from cognition about the significance of enhancing scholastic achievement of marriage immigrant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isting status and cases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 educational programs for marriage immigrants and derive future issues.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marriage immigrants are also an important subject of life-long education and hence, it was noteworthy to discuss needs of reviewing the significance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to them. The study confirmed that not only the enhancement of academic level of education for self-realization, children's education and employment is significant to marriage immigrants but integration in to Korean society as an important building block is also substantial for them. Furthermore, the study revealed that currently, the education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marriage immigrants is based on social integration and adult literacy education, however, a detailed discussion about each features and varied points are needed. In a survey conducted in this study, the cases of education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 in Eumseong County(Eumseong-gun) showed that marriage immigrants in their 20s and 30s who emigrated to Korea and lived between 2 to 5 years have highest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 Moreover, the higher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TOPIK level 4 or higher) of marriage immigrants, the higher the passing rate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was noted. Henceforth, as a follow-up study, a customized and in-depth education plans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s for enhancing the academic level of marriage immigrants through Korean language/multicultural education interface shall be conducted. **(Anyang University)**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Marriage immigrants, Scholastic achievement education,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Korean language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1. 머리말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의 사회 변화와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학력 신장 교육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대비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학력 신장 교육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망하고 향후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분야의 학제간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평생교육학 분야의 최근 논의(한승희·양은아·임혜진, 2020: 32)를 살펴보면, ‘평생학습학이 하나의 융합학문적 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여러 학문들이 초연결되어 새로운 연구 문제와 방법을 개발하도록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본고는 다문화시대의 한국어/다문화 교육 분야와 평생교육의 관련성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다문화 교육에서도 ‘평생교육’의 관점이 반영된 성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성인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재 개발(심혜령·조옥이, 2017)과 교육방안 모색(정하라, 2019)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생애주기’가 교육의 주요 고려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시대의 다문화교육(채재은·허준, 2012),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연구의 동향과 쟁점(이윤진, 2019)을 다룬 성과를 비롯해서 한국어/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평생교육의 시각을 견지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¹⁾

1) 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보다 앞서서 ‘평생교육’이라는 주제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애주기를 토대로 한 평생국어교육(민현식, 2015), 평생학습사회와 문식성 교육(이지영, 2019)과 같이 평생교육의 개념, 관점, 방법론 등이 학문 분야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결혼이민자 대상 검정고시반’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안착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현황 및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관련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검정고시’와 ‘이민자’라는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관련 선행연구(서홍란 외, 2016)는 1편에 불과하다(2021년 1월 현재).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한국에서의 취업(김정희·최은수, 2012; 진은희, 2014), 자녀 교육과 자아실현 욕구(서홍란 외, 2016) 등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에서 볼 때 새로운 학문적 쟁점으로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분류 체제²⁾를 살펴보면, ‘기초문해교육’과 ‘학력보완교육’을 포함하여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기초문해교육’의 주된 내용은 문자해득(한글교육)이고, ‘학력보완교육’은 검정고시강좌, 독학사강좌, 학점은행제 강좌 등이다.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주로 일반인(내국인)을 대상으로 해 왔으나 다문화시대를 맞으며 이민자도 그 대상(권미경·조용하, 2009; 권정숙, 2012; 채재은·허준, 2012)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민자가 이주국(한국)의 문자(한글)와 언어(한국어)를 익히고 현지에서의 학력 보완 또는 학력 신장을 위해 받는 일련의 교육 자체가 평생교육의 일환인 동시에 한국어/다문화교육의 한 범주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재 이주민의 학력 신장 지원은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수강생 모집”³⁾, “성인 고졸 검정고시반”⁴⁾ 등과 같은 지자체별 프로그램

2) 김진화 외(2010:222)의 내용을 이지영(2019:440)에서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크게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업 기간: 2020.7.15.-8.21)의 공지 문구이다.

4) 음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업 기간: 2021.1.18.-3.31)의 공

램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실시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대상 검정고시 교육 지원 및 성과에 대해서는 매체 기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초등생 학부모인 다문화 여성이 ‘다문화 엄마학교’ (전라남도)에서 초등교과 학습 후 초등검정에 80% 이상 합격했다(연합뉴스, 2020.8.13.)는 반가운 소식, 초졸부터 고졸 검정고시 까지 모두 합격하면서(인천다문화센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본국에서 못다한 공부의 아쉬움을 풀게 된 이민자(경인일보, 2017.9.27.)의 감동적인 성공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시대에 결혼이민자의 학력 신장은 평생교육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둘째, 결혼이민자 대상의 검정고시 교육과 관련된 제도 및 사업의 영역은 무엇인가?

셋째,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교육 사례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향후 결혼이민자 대상 학력 신장 교육과 관련된 주요 과제 및 쟁점은 무엇인가?

본고의 연구 절차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평생교육으로서 검정고시와 결혼이민자의 연관성을 선행연구와 매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검정고시 교육을 제도 및 사업 영역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와 자료를 다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한다. 4장에서는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 사업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음성군)를 발굴하여 그 경향성과 특징을 밝힌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5

지 문구이다.

장에서는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교육 관련 과제 및 쟁점을 논한다.

2. 평생교육으로서 검정고시와 결혼이민자

본 장에서는 검정고시의 개념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검정고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 검정고시의 대상으로서 결혼이민자에게 주목해야 할 필요성과 그 근거를 알아본다.

2.1. 평생교육과 검정고시

검정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밝힌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김덕근(2016), 김종세(2020)의 논의를 꼽을 수 있다. 검정고시란 “어떠한 자격에 필요한 지식이나 학력, 기술 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김덕근, 2016: 53)이며 검정고시제도는 “현행법상 정규 학교 밖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시험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김종세, 2020: 136)이다.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등 모두 세 가지 시험으로 구분된다.

검정고시는 광복 직후에 도입되었는데 사회 변화에 따라 그 문화와 위상도 달라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문화사회에서 검정고시는 사회통합의 매개체로서 기능을 새로이 수행하게(매일신문, 2011.6.11.) 된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학령기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쳤거나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내국인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으로까지 검정고시 응시 대상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 검정고시가 도입된 시기는 광복 직후다. 당시 독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교부가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현 고졸검정고

시)를 실시한 것이 효시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었다. 가난의 굴레를 벗기 힘들었던 1950~70년대를 살아온 세대들에게 학업은 일종의 사치품이었다.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바빠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중략) 하지만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검정고시 문화도 많이 변했다. 이제 검정고시는 10대 인재들의 등용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검정고시가 결혼이주여성들과 북한 이주민들의 한국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검정고시의 진화…만학도 전유물→10대 인재 등용문·다문화 사회통합”, <매일신문>, 2011.6.11)

김덕근(2016)에 따르면 검정고시는 그 기능에 따라 ‘평생교육적 차원’과 ‘공교육의 수월성 차원’⁵⁾에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보완 교육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둔다면 검정고시의 본연의 성격대로 ‘평생교육적 차원’(김덕근, 2016: 66-67)에 더 무게 중심이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에게 검정고시가 이주한 나라에서 새로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이자 보완 제도인 만큼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함을 잘 보여준다.

5) 한편 김덕근(2016: 66-67)에서는 검정고시의 ‘공교육의 수월성 차원’을 “학령기 학생들이 숙진이나 내신 점수 만회 등을 위해 학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학력을 취득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또 “입시 위주 교육 환경에서 개별 학부모 및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 가져온 예기치 않은 결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최근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까지 이러한 행렬에 가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교육의 담담함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공교육의 수월성 차원’은 본고의 주된 논점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2.2.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과 검정고시

국내에서 결혼이민자의 학력 신장에 관심을 두고 검정고시반 개설의 움직임이 나타난 시점은 2010년대 초반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관계자 인터뷰 기사(사천다문화지원센터 이정기 센터장)를 찾아보면 검정고시반 개설 배경을 이민자의 취업 지원 측면에서 언급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학력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봤다” (중략) “이중 언어가 가능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게 됐다” (“이주여성, 취업전선 향해 검정고시 도전”, <경남일보>, 2013.7.26.)

위와 같이 취업 측면 이외에도 결혼이민자에게 ‘학력’은 자녀 교육의 문제, 자신의 꿈 실현과도 매우 밀접하다. 학력지원, 학력신장, 학력취득과 같은 맥락에서 검정고시는 결혼이민자가 사회참여 기회를 스스로 확대해 갈 때 필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초졸, 중졸, 고졸과정에 모두 합격한 한 이민자(인천다문화센터)의 인터뷰 내용에서 검정고시 응시 이유와 포부를 엿볼 수 있다.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학교 숙제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엄마이고 싶었다.”, “경찰의 꿈을 언젠가는 이루고 싶다.”, “대학에 진학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해서 꼭 한국 경찰에 도전해 보겠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원미향씨” 인터뷰 중 일부, <경인일보>,

2017.9.27.)

이처럼 결혼이민자의 검정고시는 ‘취업’, ‘자녀 교육’, ‘자신의 꿈 실현’을 위한 기초 학력 제고의 기회이자 수단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더 나아가 서흥란 외(2016)에서는 결혼이민자(베트남 여성)의 생애사 연구⁶⁾를 통해 검정고시 학습경험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도출한 바 있다.

- 결혼이주여성의 베트남에서의 학습경험 : 아쉬움이 남는 본국에서의 교육경험
- 결혼이주여성의 검정고시 학습참여 동기 : 나와 가족을 위한 값진 투자
- 검정고시 준비과정에서의 경험 :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기대하지 못했던 긍정적 변화
- 학력취득의 의미 :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 생애사적 의미

서흥란 외(2016)의 논의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검정고시는 학력 취득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며 이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 매우 의미 있는 생애사적 사건’ ”으로 정의된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생애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학업 포기’,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검정고시 학습과정 참여’로 범주화된다. 특히 검정고시 학습과정 참여는 본국에서의 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보상받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동기와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6) 서흥란 외(2016)에서는 1회 이상 검정고시 응시 경험이 있고 더 높은 단계의 학력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결혼이주여성 4명을 대상으로 3회 이상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있다는 것이다.

3. 결혼이민자를 위한 검정고시 교육 사업의 영역

검정고시 교육 사업의 영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 사업의 정체성과 본질을 이해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다. 현재 결혼이민자가 수강할 수 있는 검정고시반은 크게 ‘사회통합영역’의 학업지원과 ‘문해교육영역’의 두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실제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역과 문해교육 영역의 어느 쪽에 속하든 수강이 가능하므로 그 차이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업의 영역에 따라 사업 주체, 예산의 출처, 교육 대상의 범위 설정, 교육의 목적 등이 차별화되므로⁷⁾ 검정고시 교육의 사업 영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1. 사회통합영역의 학업지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⁸⁾을 살펴보면 크게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사업의 여러 영역 중 ‘사회통합영역’이 있는데 검정고시 사업은 사회통합영역 중 하나에 속한다.

7) 현재 검정고시 교육 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8)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의 ‘2019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110쪽, 119-120쪽, 130쪽) 참조.

<표 1 센터의 운영사업 개요>

기본사업	특성화사업
가족 영역, 성평등·인권 영역, 사회통합영역 , 상담영역, 홍보 및 자원 연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한국어교육사업

사회통합 영역의 목적은 <표 2>와 같이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표 2 사회통합 영역의 사업 목적>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한다. - 다문화가족의 취·창업 지원, 사회활동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지지를 도모한다. - 다문화가족의 주체적 역할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식을 개선한다.
-------	---

사회통합 영역의 내용은 <표 3>에서처럼 ‘공통필수’와 ‘선택사업’으로 나뉘며 선택사업의 하위 영역에 검정고시반(학업지원반)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의 하나로서 검정고시반이 개설된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⁹⁾

9) 하나의 사례로, 창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중졸 검정고시대비반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의 모집 문구를 내걸고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바 있다.

<표 3 센터의 운영사업 개요>

공통필수	선택(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기초소양교육 -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워크넷, 새일센터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적응교육 - 소비자·경제교육 - <u>학업지원반(검정고시반 등) 운영 및 연계</u>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다문화인식개선 -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 <u>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u>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경우 필수 사업) - 재난안전교육(신규)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신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검정고시반은 사회통합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검정고시반은 공통 사업이 아닌 선택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및 운영 방식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3.2. 성인문해교육 영역

결혼이민자 대상의 검정고시 교육은 사회통합영역 이외에도 성인문해교육 영역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인문해교육은 국내 거주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결혼이민자에게 특화된 수업이 아니며 결혼이민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수업이다. 문해교육은 “일정한 대상에 대한 단순한 문자 혜택에서부터 생활 문해와 개인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개념” (정대용, 기영화, 2010: 140)으로 정의되며 결혼이민자도 문해교육 대상자로 인식된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목표로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비문해학습자층’ 이자 ‘신문해학습자

층’ (허준, 양은아, 2015: 116)로서 부각되고 있다.¹⁰⁾

성인문해교육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해교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기관(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검정고시 관련 사업으로는 ‘성인문해 교육 지원’,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¹¹⁾이 대표적이다.

먼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39조¹²⁾에 근거

10)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문해교육의 하나로 검정고시반을 개설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한 결과, 지역 상황에 따라 전체 수강생 중에 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문해교육의 주된 대상이 고령의 어르신들이고 결혼이민자가 전혀 없는 곳에서부터 어르신과 결혼이민자가 혼합 구성된 곳, 결혼이민자가 주를 이루고 일반인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었다. 즉 정확한 수치 정보는 전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겠으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문해교육 영역의 검정고시반 수강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하고 일부를 이루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nile.or.kr>)

12) 평생교육법 내 성인문해교육 관련 조항(제2조, 제39조)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 실시 등)

- ① 국가는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

하여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초·중학 학력인정제도 구축 등에 중점을 둔다. 국가문해교육센터¹³⁾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는 성인문해 교육자료,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기관 정보,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해교육교원연수,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성인문해 능력조사, 문해교육 활성화 등과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자료 접근성, 유용성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 특히 최근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 성과(2019년) 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으로서, 문해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한 ‘성인문해교과서 개정’¹⁴⁾, 문해교육기관 방문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시범 운영’ 등¹⁵⁾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검정고시 응시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정고시지원센터’¹⁶⁾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수행한다. 검정고시센터에서는 검정고시 활성화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이념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저학력 학습자의 학력보완,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학습성장 지원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또한 검정고시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검정고시 네트워크 강화 등 센터의 주된 추진사업별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¹⁷⁾

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국가문해교육센터 (<https://le.or.kr/index.do>)

14) 초등 교과서 개정(2018), 중학 국어, 영어, 사회 교과서 개정(2019년), 중학 수학, 과학 교과서 개정(2020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5)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및 문해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 자료집 참조.

16) 검정고시지원센터(<https://www.gumsi.or.kr>)

17) 국가고시의 하나인 검정고시 시험 출제 및 관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

이상으로 살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과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매우 긴밀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이 한글 읽기부터 학력 인정 교육까지 망라하는 기초학력교육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은 검정고시라는 시험 제도와 이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성인문해교육에서 검정고시 대비반을 지원하기도 하고 학습자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은 그 규정에 따라 실제 검정고시에서 응시해야 할 과목 면제를 받는 일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은 일정한 기간(초등 3년, 중등 2년) 동안 수업에 참여해야 하므로¹⁸⁾ 검정고시 응시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선호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은 결혼이민자 대상 검정고시 교육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4.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 사업 운영 사례

본 장에서는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 사업의 대표적인 운영 사례(음성군)를 분석함으로써 그 경향성과 특징을 밝힌다. 음성군¹⁹⁾은 3년 이상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

원(<http://www.kice.re.kr>)이 맡고 있다.

18) 공교육에서 학습 경험이 거의 없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년층 학습자는 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선호할 수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19) 본고에서는 검정고시 교육 사업 운영의 적절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와 유선 접촉을 시도하고 실무 담당자를 찾아 문의를 하였다. 그 가운데 검정고시반의 기획과 운영을 직접 담당하여 사업 이해도가 높고 해당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지와 애정을 가장 많이 보인 지자체(음성군)

업으로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에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 사업의 사례 조사 대상으로서 의미가 크며 향후 관련 사업 운영 및 연구의 후속 작업에 함의하는 바를 탐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음성군은 충청북도에서 등록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이다.²⁰⁾ 음성군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이주민의 국적은 중국과 베트남이 가장 많고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이 그 뒤를 잇는다.

음성군에 검정고시반이 처음 개설된 시점은 2018년 10월이고 2020년까지 총 6개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정규반 5개, 시험대비반 1개). 검정고시 사업은 ‘관내 주민 및 다문화여성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다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군청의 평생학습과가 전담해 왔고 결혼이민자 수강생 모집 등을 위해 관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앞서 3장에서 밝힌 검정고시 사업 영역의 측면에서 보면, 음성군의 검정고시반은 성인문해교육 영역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개설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통합영역차원에서 유관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협력 체제를 구축한 사례로 설명할 수 있겠다.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정고시반 운영 현황에 대한 토대 자료(사업계획서, 매체 보도 기사, 결혼이민자 참여도 등) 수집에 있어서 음성군청 평생학습과(박관우 주무관)와 음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정북동 센터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취지 및 연구 목적을 전제로 한 자료 수집 과정임을 사전에 설명하였고 검정고시 교육 현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보충 자료가 필요할 때 실무자(박관우 주무관)와 수차례 유선으로 소통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자료 수집, 분석, 해석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충청북도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등록외국인(37,788명,100%)의 23.4%(5,841명)가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다.(2020년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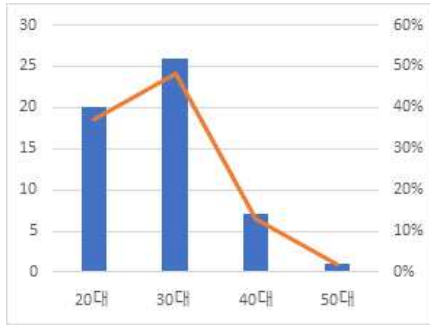


<그림 1 검정고시 수강생의 국적별 비율>

음성군의 “성인 검정고시반”은 초졸검정고시(2018년, 2019년)를 시작으로 중졸검정고시(2019년, 2020년), 고졸검정고시(2020년) 대비반이 수강생의 요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설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림 1>은 3년간 운영된 검정고시반의 결혼이민자 수강생 인원과 국적별 비율을 시각화한 것이다. 총 누적 인원은 총 54명(100%)이고 수강생의 국적은 베트남(28명, 52%)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캄보디아(13명, 24%), 중국(7명, 13%), 필리핀(5명, 9%), 몽골(1명, 2%) 순이었다.

지금까지 검정고시반을 수강한 전체 결혼이민자의 연령대 분포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0대(26명, 48%)와 20대(20명, 37%)가 전체의 8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40대(7명, 13%), 50대(1명, 2%) 비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시자 수는 현격히 줄었고 60대 응시자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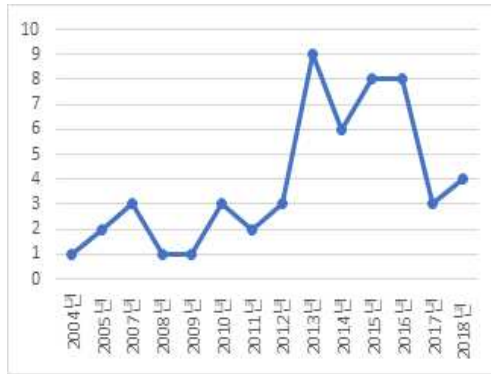
(단위 : 명)



<그림 2 검정고시반 수강생의 연령대>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이주 시점(연도)과 검정고시반 수강 현황을 살핀 결과, 어느 정도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위 : 명)



<그림 3 이주 시점과 검정고시 수강>

2004년부터 2018년에 이주한 결혼이민자가 폭넓게 검정고시반을 수강했다. 이는 이주한 지 약 2~5년 사이(2016년~2013년, 2018년 기준)의 이주민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향성이 가장 높음(<그림

3>)을 시사한다. 반면 입국 직후와 장기 체류의 결혼이민자가 검정고시반을 수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입국 초기에는 한국생활 적응과 한국어 학습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력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주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이미 한국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거나 안정되었기 때문에 학력 신장의 필요성이나 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단위 : 명)



<그림 4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정규반 수강생>

<그림 4>는 음성군에서 개설한 5개 정규 검정고시반의 수강생 비율을 시각화한 것이다. 초졸 검정고시반에는 1회차(2018년, 14명)와 2회차(2019년, 27명)를 통해 총 41명이 수강을 했다. 이는 누적 수강생의 76%에 달하는 비율이라는 점에서 초졸 검정고시 대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을 보이는 수치이다. 이어서 중졸 검정고시반에는 1회차(2019년, 17명)와 2회차(2020년, 15명) 누적 수강생이 총 32명(59%)이었다. 가장 마지막에 개설된 고졸 검정고시반(2020년, 10명) 수강생 비율이 초졸/중졸반에 비해 낮게(19%) 나타난 까닭은 초졸, 중졸 검정고시 합격생이 수강 대상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된 음성군의 검정고시반을

거쳐 배출된 검정고시 합격생 인원과 비율은 <표 4>와 같다. 총 54명(100%)의 누적 수강생 중 초졸 검정고시에 19명(35%)이, 중졸 검정고시에는 12명(22%)이 합격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아직 배출되지 않았으나 2명(4%)이 부분합격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4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반 합격 현황>

	합격 인원	합격 비율	부분합격 인원 ²¹⁾	비율	총계	비율
초졸 검정고시	19명	35%	4명	7%	23명	43%
중졸 검정고시	12명	22%	1명	2%	13명	24%
고졸 검정고시	-	-	2명	4%	2명	4%

다음의 <표 5>는 검정고시반 수강생 중 합격생의 개인적인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데이터에서 주요 정렬 기준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로, 누적 수강생(54명, 100%) 중 일부(26명, 48.1%)의 자료이다. <표 5>는 초등, 중등, 고등 검정고시 응시 연도와 합격 여부, 한국어능력, 결혼이민자의 국적, 이주 시점(연도), 연령 등을 정렬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검정고시에서 최소 부분 합격의 결과라도 얻은(25명, 46.3%) 수강생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1명 제외)에서 발췌하여 보인 것이다. 전체 수강생 중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급수(4급)를 보유한 사람(7명, 13%)을 모두 표에 반영한 것인데 대부분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1명)도 있었다.

21) 검정고시 응시 과목 중 일부 과목에 부분 합격했다는 의미이다. 부분 합격의 경우는 차후 검정고시에서 해당 교과목 응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표 5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반 합격 현황>

누적 수강생(54명, 100%) 기준

(이주 전) 국적	연령	이주 연도	한국어 능력	초졸검정 응시연도	초졸검정 고시	중졸검정 응시연도	중졸검정 고시	고졸검정 응시연도	고졸검정 고시
캄보디아	27	2016년	4급	2019년	합격	2020년	합격	2020년	합격(부분)
베트남	29	2016년	4급	2019년	합격	2020년	합격	2020년	합격(부분)
베트남	26	2015년	4급	2019년	합격	2020년	합격		
캄보디아	30	2014년	4급	2019년	합격	2020년	합격		
중국	26	2018년		2020년	합격	2020년	합격		
캄보디아	27	2013년		2020년	합격	2020년	합격		
베트남	27	2014년		2019년	합격	2020년	합격		
베트남	30	2014년		2019년	합격	2020년	합격		
베트남	32	2016년		2019년	합격	2020년	합격		
베트남	34	2007년		2019년	합격	2020년	합격		
베트남	28	2013년				2019년	합격		
캄보디아	41	2007년	4급	2019년	합격	2020년	합격(부분)		
베트남	29	2013년	4급	2019년	합격				
캄보디아	25	2017년		2019년	합격				
베트남	27	2010년		2019년	합격				
베트남	27	2015년		2019년	합격				
캄보디아	27	2016년		2019년	합격				
베트남	29	2013년		2019년	합격				
베트남	32	2008년		2019년	합격				
베트남	32	2015년		2019년	합격				
중국	40	2007년		2019년	합격				
베트남	27	2017년		2019년	합격(부분)				
필리핀	30	2016년		2019년	합격(부분)				
캄보디아	35	2010년		2019년	합격(부분)				
베트남	41	2009년		2020년	합격(부분)				
베트남	27	2016년	4급						

이상으로 살핀 음성군의 검정고시 교육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수강생의 연령대는 20~3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림 2>) 초졸부터 고졸 검정고시 부분합격에 이르기까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결혼이민자(2명)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한국어능력(TOPIK) 4급’ 수준을 보유한 ‘20대’ 라는 것을 알았다(<표 5>). 이는 검정고시반 수강에 대한 요구, 한국어능력과 검정고시의 상관성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다. 이 이외에도 4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지닌 결혼이민자(7명(100%) 중 대다수(6명, 87%)는 하나 이상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낸 점이 주목할

만하다(<표 5>). 최종적으로 중졸검정고시 이상 합격(4명), 중졸검정고시 부분합격(1명), 초졸검정고시 합격(1명)을 했다.

둘째, 검정고시 수강과 합격은 결혼이민자의 이주 시점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주한 지 약 2~5년 사이(2016년~2013년, 2018년 기준)의 이주민이 검정고시반을 수강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그림 3>) 그들이 초졸부터 고졸까지의 검정고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비율도 가장 높은(<표 5>)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결혼이민자 대상 검정고시반을 기획하거나 운영하고자 할 때 이주 시점에 따른 요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경우 검정고시를 반드시 초졸-중졸-고졸의 순서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드물기는 하지만 초졸 검정고시 미응시인 채로 중졸 검정고시에 바로 합격한 사례(베트남, 28세)가 발견된다. 이것은 학습자의 상황과 요구, 개인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굳이 초졸 검정고시부터 시작하지 않더라도 중졸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함을 함의한다.

5.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교육의 과제 및 쟁점

본 장에서는 2~4장을 토대로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교육으로서 검정고시에 대해 향후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와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에게 학력 신장은 ‘취업’, ‘자녀 교육’, ‘자신의 꿈 실현’을 위한 기초 학력 제고의 기회이자 한국 사회 통합의 디딤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에서 학력 신장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를 느끼는 결혼이민자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의 학력 신장 교육 사업에 관심을 쏟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검정고시반 운영 사례에서

도 확인했듯이(<그림 3>) 입국 후 약 2~5년 사이 이주민의 검정고시 참여도와 합격률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향후 검정고시반 기획, 운영, 홍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앞으로는 결혼이민자 변인별 요구와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사례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해 사회통역영역과 성인문해교육영역 두 차원의 특징 및 차별점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본고의 3장에서 살핀 것처럼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 사업의 대표적인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중 사회통합영역에 포함되는 선택 사업으로서 검정고시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도하는 성인문해교육 영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정고시 교육이다. 전자는 ‘다문화’와 ‘사회통합’에, 후자는 ‘성인문해’에 더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대상 검정고시 교육이 성인문해교육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일반 성인, 주로 어르신이 대다수의 수강생으로 구성되는 문해교육에 포괄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노년층 수강생과 제2언어로 한국어를 익힌 결혼이민자 수강생은 검정고시 취득 목적, 수업 방식 등의 요구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한편 사회통합 영역에서 진행되는 검정고시 교육의 대상으로 성인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청소년을 아우르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앞선 연구가 거의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사례 및 현황 조사를 통해 향후의 효율적인 방향성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가 학력 신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과 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받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 교육 지원 중 학력 인정 문해교육의 대상은 고령층의 비문해학습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결혼이민자에게도 수강 기회가 열려 있으나 아직 주된 수강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은 검정고시 응시에 비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지만 장기간(초등 3년, 중등 2년)의 학습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초졸/중졸 학력 인정 프로그램별로도 결혼이민자의 요구에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상황과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 인정 문해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평생교육과 한국어/다문화 교육 분야의 접점과 역할을 더 면밀히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또한 결혼이민자 대상의 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더라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5,6단계 한국사회이해)과 같이 기개발된 과정 이수를 일부 학력 인정으로 간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 및 정책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검정고시는 이전에 없었던 ‘사회통합’의 기능을 새로이 수행하게 되었고 검정고시의 새로운 수요자층으로서 결혼이민자가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교육의 의미, 현황과 실태 파악 등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 논의의 시작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검정고시와 결혼이민자와의 연관성을 밝힌 후 결혼이민자를 위한 학력 신장 교육이 현재 사회통합 영역과 성인문해교육 영역에서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검정고시반 운영의 실제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학력 신장 교육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요구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교육 관련 과제 및 쟁점을 논하였다. 이와 같이 본고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의 학력 신장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

문 최초의 연구로서, 이어질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국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세도 지속될 것이다.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주한 국가에서의 학력 신장은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자녀교육, 자아실현 등 다면적인 의미로 재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 본고를 통해 부각되었기를 기대한다. 후고에서는 한국어/다문화교육 영역에서 향후 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그리고 학력 신장 교육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하고 심도 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미경·조용하(2009). 여성결혼이민자 문화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습득의 평생교육적 함의,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2(3), 한국성인교육학회. 1쪽~26쪽.
- 권정숙(2012).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학습 방향탐색, <교육연구논총> 33(1),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49쪽~72쪽.
- 김덕근(2016). 검정고시 제도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한 검정고시 제도의 발전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구> 22(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51쪽~75쪽.
- 김종세(2020). 검정고시제도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78, 한국법학회. 135쪽~154쪽.
- 김진화·고영화·권재현·정민주(2010).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3), 한국평생교육학회. 211쪽~236쪽.

- 민현식(2015). 국어교육과 생애주기(평생)교육의 학제적 접근 -평생국어교육의 문해력 증진을 위하여-, <國語教育學研究> 50(1), 국어교육학회. 6쪽~46쪽.
- 심혜령·조옥이(2017). 생애주기적 관점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학회. 97쪽~117쪽.
- 서홍란·배영미·유영림(2016).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검정고시 학습 경험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3),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33쪽~63쪽.
- 이윤진(2019).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교육 연구의 동향과 쟁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5,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17쪽~238쪽.
- 이지영(2019).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는 국어교육 - 국어교육과 평생교육의 협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1. 435쪽~446쪽.
- 이지영(2020). 평생학습사회와 문식성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71, 한국국어교육학회. 1쪽~29쪽.
- 전은희(2014).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취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0(3), 한국평생교육학회. 1쪽~35쪽.
- 정대용·기영화(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해교육 경험이 생활 적응 과정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HRD연구> 6(4), 송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137쪽~157쪽.
- 정하라(2019). 평생교육으로서의 고급한국어 교육 방안 모색 - 중·고급 수준 성인 이주 학습자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학회. 49쪽~79쪽.
- 채재은·허준(2012). 평생학습시대의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비교교육연구> 22(1), 한국비교교육학회. 1쪽~23쪽.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2019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한

국건강가정진흥원.

한승희·양은아·임혜진(2020). '평생학습' 개념 생태계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6(2), 한국평생교육학회. 1쪽~39쪽.

허준·양은아(2015). 성인문해교육 시스템화기 문해학습과정의 특성: 울산광역시 사례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111쪽~143쪽.

<관련 홈페이지 및 기사>

검정고시지원센터(<https://www.gumsi.or.kr>)

국가문해교육센터(<https://le.or.kr/index.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s://www.nile.or.kr>)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s://gy-hfsc.familynet.or.kr>)

음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s://eumseong.familynet.or.kr>)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원미향씨”, <경인일보>, 2017.9.27.

“고졸 검정고시의 진화…만학도 전유물→10대 인재 등용문·다문화 사회통합”, <매일신문>, 2011.6.11.

“전남도 ‘다문화 엄마학교’ 로 검정고시 지원”, <미래뉴스>, 2020.08.03.

필자 소개

성 명 : 이윤진

소 속 :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우편번호]14028

전화번호 : 031-463-1395

전자우편 : smile-yunjin@hanmail.net

투고일: 2021. 7. 1 / 심사일: 2021. 7. 30 / 심사완료일: 2021. 8. 18